

사회

“이집션,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Egyptian)

광주시민들 남다른 감회 ... “힘난한 민주화 여정 꼭 성공하길”

강운태 시장·윤봉근 의장 축하 메시지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5·18민중항쟁’이 벌어졌던 광주의 각계 인사들은 독재를 몰아낸 이집트 국민에 일제히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목숨을 내건 투쟁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을 사임시킨 이집트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한편 ‘힘난한’ 민주화의 여정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특히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지역 인사들은 민주화 세력과 야당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주화 전환의 기회가 자칫 군부와 재벌 등 기존 집권층에 의해 짓밟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전했다.

윤창현 전 한국YMCA 이사장은 13일 “이집트 혁명은 시민들의 희

생을 토대로 쟁취했다는 점에서 시 민항쟁의 모범 케이스라 할 수 있는 5·18과 닮은 꼴”이라면서 “다만 시민세력인 엘리트층과 서민층 등 계층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군부 세력이 절대적인 상황이어서 민주화까지는 힘난한 여정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병하 조선태 아랍어과 교수는 “무바라크 철권 통치의 몰락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이집트 혁명의 성공 여부는 시위 과정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던 군부가 민간에 정권을 넘기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각심과 노력이 한층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양태 광주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은 “이집트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 결실을 맺었지만 아직 축제 분위기에 젖어서는 안된다”며 “개헌과 대선, 취약한 사회·경제 정 상황 등 민주화의 안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끝까지 시민의 힘으로 진정한 자유를 지켜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장의 의장을 13일 시민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30년 철권통치를 무너뜨린 이집트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147만 광주시민과 함께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과 윤 의장은 “1980년 5월,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열었던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광주는 죽음을 무릅쓴 항쟁의 고통과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며 “새 시대를 향한 이집트 국민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항쟁에 염속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4년 전 공무원 자격으로 한국 연수를 온 이후, 지금까지 광주 인권평화재단 김양태 사무국장님과 친분을 맺고 있는 이집트인 모하메드(34)씨가 보내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모하메드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사무국장에게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해준 광주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한국 연수시절 봤던 ‘광주, 대학, 혁명에 관한 영화’ 제목(화려한 휴가)을 기억하지 못하니 알려달라며, 이를 이집트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내용도 덧붙여왔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너무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마음을 놓게 되면 그들은 제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며, 끝까지 자유를 지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119 울리는 실적평가

민원해결 등 소방서 순위 경쟁 ... 출동지연 우려

광주지역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재·구급·구조 등 본연의 임무는 물론, 각종 민원 해결과 업무실적 평가업무까지 맞물리면서 업무량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등 본연의 임무 외에도 고드름 및 벌집 제거, 배수 및 급수지원 등 한 달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소방대원들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 등 업무실적 평가까지 맡게되면서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 소방서는 지난해 ‘화재와의 전쟁’에 이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등 다양한 업무실적 평가 업무를 시행 중이다.

업무실적 평가는 광주시에 각 소방서 간은 물론 시·도 간, 전국 소방서 간 업무 실적을 점수화한 뒤 순위를 매기는 제도로, 실적이 좋은 소방서를 표창한다.

문제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이 잦은 업무성과 평가로 인해 실적 위주의 행정업무에 매달리면서 화재 현 장 지연 출동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소방서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평가를 한 뒤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실적주의에 따른 중앙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화재·구조 등 본연의 업무량도 매년 증가하면서 대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출동건수는 5만6825건으로, 2009년(5만3883건)보다 5.5%(2942건) 늘었다.

광주 일선 소방서의 한 소방대원은 “소방서는 화재진압이 주요 임무인데, 각종 민원 해결은 물론, 업무실적 평가업무까지 챙기느라 바쁘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며 “소방 인력 확충이나 대원들의 피로누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유명 상품 저가 판매 30대 여에 무죄 선고

유명 상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3일 유명 화장품을 싸게 판매해 상표 명성을 손상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여·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특정 상품의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돼 그 식별력과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장씨 처럼 단순히 저가에 상품을 판 것은 이 규정이 정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상 판매가 2만5000원인 유명 알로에 화장품 40개를 개당 2만1000원에 팔아 해당 상품이 저가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노총각 울리는 결혼업체

중매 미끼로 1억7천만원 가로챈 2명 징역형

중매를 미끼로 40대 노총각으로부터 약대의 돈을 가로챈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3일 중매 명목으로 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남구 봉선동 D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여·51)씨와 부장 이모(여·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피해자를 속여 수십 차례나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적잖은 채무를 지게된 점 등에 비추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5월 26일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40대 노총각인 임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각각 9300만원, 8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실 운영 경비와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결혼이 급한 임씨에게 접근해 무려 56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어설픈 강도 연기

편의점 종업원 친구와 짜고 자작극 벌이다 ‘덜미’

광주의 한 편의점 종업원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강도 자작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A편의점 종업원 김모(17·광주 동 고교 2년)군은 지난 12일 밤 11시15분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자신이 일하는 A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광산경찰에 신고했다. 복면을 쓴 강도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내용이었고.

신고 받은 경찰은 형사 3명을 현장에 급파, CC-TV(폐쇄회로) 화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화면 분석과정에서 어설픈 점을 발견했다. 강도가 김군의 목살을 잡고 흔들면서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매우 장난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김씨를 눈치챈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고, 김군은 A편의점 전 종업원이 친구인 이모(17)군과 짜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김군은 경찰에서 “용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산경찰은 13일 김군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이군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포장보다 내용물” 밸런타인데이 등의 특징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세트의 과포장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상점에서 여성들이 직접 초콜릿과 사탕, 선물 상자들을 구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함바 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재소환

검찰, 배간기 전 청와대 검찰팀장도 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함바집 수주·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3천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1시 함바와 관련한 각종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간기 전 청와대 검찰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청장과 배 전 팀장은 각각 지난 12일과 18일 검찰에 처음 소환돼 10여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구속)과 함께 출국 금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아내 혼전 성관계

1년 이상 동거 후 결별

이혼 사유 안된다

예단비 반환 의무 없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인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B씨와 동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재웅 부장판사)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A(여)씨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하고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년 이상 동거하다 불화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연합뉴스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일